



# 니가 왜 거기서 나와 (1)



1월 7일 한국 농림축산 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현지인이 제일 사랑하는 한식 1위는 '한국식 치킨'이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가 아닌 치킨이냐니?! 치킨은 전 세계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인데 굳이 한국식 치킨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니 한국식 치킨이 분명 맛있긴 맛있는 모양이다.

누런 편지봉투에 현금 두둑이? 월급을 받아오 시던 옛 아버지들은 월급날이면 또 다른 누런 종이봉지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 포일로 동그랴게 싸여 있던 또 다른 노랑 통닭(간접광고 아님)을 잇을 수가 없다. 후추 소금과 하얀 무 봉지와 기름에 바삭 튀겨져 노랗던 통닭은 일단 냄새부터 그 맛까지 온 식구를 사로잡았다. 추억이라는 것이 세월을 더하며 그 겹을 더하다 보니 맛이 선명히 기억나지도 않으면서 '오도독 오도독' 연골까지 열심히 뜯어먹었던 기억이 그저 행복하고 아름답기만 하다.

세월이 흐르며 여러 형태로 변해가던 한국식 치킨은 내가 미국에 살 때는 접하기 힘든 메뉴였다. KFC, Popeyes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닭요리를 공급하니 한국식 치킨은 설자리가 마땅치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한국 치킨 1세대 페리카나 치킨이 한인 타운에 있던 했지만 내가 기억하던 한국식 양념 치킨과 전혀 다른 맛에 놀란 후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러다 혜성처럼 나타난 한국식 치킨이 LA에 상륙했었는데 OC에 사는 내가 마음을 먹고 사 먹으러 갈 정도로 입맛에 딱이었으니 이 산메뉴는 바로 교촌치킨

이었다. 치킨과 간장이라니. 불고기도 아닌 것이 바비큐도 아닌 것이 튀김인데 튀김이 아닌 것 같은 모호한 경계선상의 이 메뉴는 내 미각을 자극하고 중독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차를 몰고 엘에이까지 가서 사 먹었을까. 미술랭 선정 기준을 적용하자면 먹고 싶어 여행을 하는 정도이니 미술랭 쓰리 스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기대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촌치킨이었다. 다시 정정하자면 교촌 배달 치킨이다. 직접 찾아가는 수고가 웬 말? 전화나 앱으로 몇 마디 혹은 몇 번 클릭만 하면 순식간에 집 앞으로 따뜻한 치킨이 배달되어 오니 치킨 먹으러 LA 가던 나에게 신천지! 하지만 그 첫 배달의 만남은 기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기대가 커서? 내 입맛이 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게 앞을 몇 번 오가며 알 수 있게 되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라서 그런 건지 살짝만 들여다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저분함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다. 가게 앞에서 끊임 없이 솟아오르는 담배 연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은 어린 배달 직원이며 50대 후반은 되어 보이는 사장님까지 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전 스태프 분위기며 너저분한 가게 내부, 여러 가지로 조합해볼 때 위생과는 완전 거리가 멀어 보였다.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된지 모를 배신감과 내가 느끼는 이 기분이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 동네 친구들의 동의까지 받으니 나의 최애 치킨

이 더 이상 최애가 아니었고 결국 나는 미용실처럼 치킨집 유목민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동네 큰길에 또 다른 코로나 19의 희생양으로 보이는 어느 카페가 문을 닫고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것을 목격하였다. 이번엔 어떤 가게가 생기려나 하며 지나쳤는데 며칠 후 다시 그 길을 지나며 본 간판은 교촌치킨 신규점이라니! 게다가 배달 전문점이 아니고 테이블에 앉아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치킨을 먹을 수 있는 펍 스타일 식당이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오픈 날짜까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는 당당히 개업 첫날 첫 손님으로 그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어... 어? 어?! 내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갑자기 이 노래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끝이 없는 후렴처럼 계속해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To be continued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 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b>*독점* 라미라다 힐스보로</b>	<b>플러튼 단독주택</b>	<b>*최고학군* Walnut</b>	<b>몬테리파 다운타운</b>
 2,761sqft 방4개 화3개 아랫층 방 게이트 커뮤니티 <b>\$980,000</b>	 SOLD 방4 화2 대지 6,500sf <b>\$575,000</b>	 남가주 최고 학군 월넛 그림같은 집 3,700 sqft 방4 화4, 수영장, 두번째 주인 아주 좋은 운/ 복이 많은 집 (풍수) <b>\$1,550,000</b>	 [몬테리파 다운타운] 출퇴근 용이하고 안전한 게이트 커뮤니티 방3 화3 1,780 sqft 2016년 지은 새집~~~ 빨리 서두르세요~~~ 마켓에 오래 있지 않을 매물입니다 <b>\$759,000</b>
<b>이스트베일 고급주택</b>	<b>뉴포트비치 상가 단독 건물</b>	<b>렌트</b>	<b>렌트</b>
 <b>Eastvale Luxury Home</b> 3,736 sqft 방5 화5 대지 11000sqft 2006년지은집 <b>\$774,000</b>	 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변화가 위치 9대 까지 파킹할수 있는 단독 주차장 스페이스 주위 상권들 아주 활발한 지역입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Grooming shop, Deli, Coffee shop, Retail 등등 발보아 아이랜드가 가까운 아주 좋은 위치 비즈니스 대박 나실 자리 임에 틀림 없습니다 <b>\$2,250,000</b>	 <b>플러튼 단층집 렌트</b> 방3 화2 넓은 거실 보너스룸 새 냉장고 새 디시워셔 새 중앙냉난방시스템 넓은 뒷마당 <b>\$2,850</b>	 <b>플러튼 타운홈 렌트</b> 방3 화3 좋은 학군 도보거리 <b>\$2,500</b> <b>필란 *빈땅*</b> 농업용 주택 부지 40에이커 자세한 것은 전화주세요 <b>\$599,000</b>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mailto:LeahchangRealty@gmail.com)